

## 기독교 문화와 증거(선교)

중세 유럽의 혼란과 암흑의 시대에, 시인 윌리엄 랑글랜드(William Langland, 1332~1440)는 「방파제를 생각하는 농부 윌리엄의 비전」이라는 책을 썼다. 이때는 대분열이 있던 전날 밤이었고 100년 기간 중에 있었다. 그 당시 “교회에서 개혁의 움직임에 관한 소망이 상실된 것처럼” 보였을 때였다(Dawson, 1958, 223). 그것은 그 당시의 종교적 문화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사실 그것은 최초로 쓰여진 영어로 된 시였다.

비록 이 시는 영어를 배운 그 시인에 의해서 쓰여졌더라도 법정이나 학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대중들이 쓰는 용어를 기록된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의 시는 근본적인 종교가 교회와 국가에서 지도층 인사들의 보다 고상하고 지적인 문화에 의해서 보다 대중들의 새로운 토속 문화에 의하여 더 많이 완전히 동화되었고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Ibid., p.219).

유명한 문화사 학자인 크리스토퍼 도우슨은 그의 시에 있어서 개혁 사상이 교회 조직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성 프란체스코가 본 것처럼 빈곤한 자들의 이상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람과 더불어 삶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파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도우슨은 존 번연을 내다보게 하는 엄격한 금욕적 도덕주의 안에서 랑글랜드를 이해하는 것이지, 법률적 문화나 동양적 여정 및 트로방스 노래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랑글랜드의 시를 종교와 문화의 통합에 대한 중세적 이상의 강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Ibid., p.222). 비록 수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었지만 700여 년 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우슨에게는 하나의 큰 증거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서구의 야만인들이 그와 같은 사상을 사고하는 것과 토속 언어를 말하는 것을 배웠었다면 외적으로 부여된 하나의 생소한 이상이 아니라 서구인의 공통적인 유산인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탄생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Ibid., p.224).

타이완에서 개최되는 국제 선교 대회를 위한 이 논문은 암흑 기간 동안에 로마 가톨릭이 일구어 낸 타락과 이교도적인 모습을 종교 개혁의 후손들과 수세기 후에 성장한 개신교에 의해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작성하였다. 필자는 지금 교회가 아시아 구석구석에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의 중심부는 특히 공산주의와 이슬람, 또는 불교가 횡행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유입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이나 타이완, 그리고 한국과 같이 자유스러운 나라에서조차도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거의 한 세기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필자는 문화를 변형시키는 힘을 지닌 다른 문화들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솟아나고 있음을 이미 보고 있다. 또 더 적극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탁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나는 청교도들이 그 시작을 너무나 빨리 퇴색시켜 일찍 생겨난 인본주의 속에서 손상당해 버렸음을 알고 있다. 그같은 모습은 미국 헌법을 기초한 후기 청교도 작가들 속에 드러나 있다. 또 나는 예를 들어 '기독교 이후 서구( Post-Christian West )' 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전역에 걸쳐 확산된 세속주의의 혹독한 서리를 본다. 그러나 나는 놀랍고 가슴을 박동시키는 그 무엇을 본다. 또 위대한 잠재력을 사역 가운데서 발견한다.

여기서 필자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다른 칼빈주의자들의 말을 쉽게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천주교인인 도우슨을 다시 인용한 것은 문화와 관련하여 그가 종교 개혁 사상에 대한 가장 최상의 정신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한 지식의 중앙에서 종교 개혁 사상의 확실한 목적을 밝혀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 배후에는 칼빈주의의 정신 세계와 루터란( Lutheran) 세계관과는 구별되는 정치적 및 사회적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자유 교회(개혁주의적인 독립 교회들-역자 주)의 정신이 깊이 깔려 있다. 칼빈

주의와 자유 교회는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전혀 의식할 바 없이 서구 문명으로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룩하고 있다. 이 차이는 수 세기를 경과하면서 철저히 명백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결과로 간주할 수 없다. 그것은 두 개의 신앙 고백서와 그 작성자들(선구자들)의 인격성 안에 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점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아주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칼빈의 가르침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과 의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엄세주의가 있으며 다른 세상적인 것들 및 신의 권능에 대한 높임과 루터에게서 발견되는 독단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개념들을 칼빈과 칼빈주의를 묘사해 주는 도덕적 행동주의의 강렬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전환되어졌다. 칼빈의 진수는 조직가요, 법률 제정가요, 엄격하면서도 논리적이며 목적하는 바에 있어서 진지한 모습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려는 의지와 함께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개신교를 감화시킨 것은 루터가 아니라 칼빈이었다( Dawson, 1942, 44~46).

그렇다. 반 프린스터러(Van Prinsterer), 아브라함 카이퍼 및 클라스 쉴더(Klass Schilder)와 같은 자들의 통찰력과 충실함과 더불어서 성경은 기독교 공동체와 섬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 문화에 대하여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에 관한 비전과 함께 신선한 길을 열어 준다.

그렇다면 나의 강조점은 비록 유젠(Xugene Nida)의 「관습과 문화」란 책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많은 유용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것처럼 기독교 선교에 인류학을 적용하는 유형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을 분석하고 급성장을 피하는 일을 위하여 문화가 연구되는 교회 성장학의 강조점과 유사한 것도 아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부러운 것이며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 토착화(Contextualizing Christianity)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것일지라도 필자의 강조점은 그러한 데 있지 않다.

필자의 목적은 성경으로부터 몇몇 원죄들을 밝혀서, 성도들이 각각 맡은 임무들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그들의 매일매일의 신앙 생활을 전망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질서를 유지하며 살도록 성도들이나 선교사들을 돕는 데 있다. 나는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회 구조와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의 구속 받은 백성들을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회 안에서 사회와 문화를 위하여서도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나는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과의 관계를 말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의 목적은 방어적인 자세, 즉 민족 문화의 악영향을 감소하려는 책략을 쓰는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선교 사역과 국가 교회가 어떻게 협력하여 기독교 문화를 창달할 것인지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에드워드 히레마(Edward Heerema) 교수는 최근에 「개혁 신앙의 파급 효과」라는 글을 쓰면서(*The Banner*, 1978, 2월 제4호) 미국에서 전도 집회나 복음주의적 강조점의 전형적인 현상인 '무아경 몰입 증상(Ecstasy-escape syndrome)'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증세들은 정신 함양, 자극, 내적 경험 및 만족감 등이다. 이러한 것들을 한국의 복음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여러 모임, 그리고 프로그램들 및 작은 그룹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나는 본다. 그러한 것이 필요한 곳이 있고 가치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레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구원이란 어떤 강압적인 짐이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악과 고통 및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의 모든 어려움 위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아경의 행복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봉사를 의미한다. 사실 구원 받은 존재는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부엌에서, 강의실에서, 사회 속에서, 사업의 분주한 현장에서 신실하게 추구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다. 삶이 영위되는 곳이나 일이 진행되며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해야 할 섬김의 시작이다. 실로 크리스찬을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크리스찬이란 그의 마음의 중심, 및 증거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이다. 크리스찬은 그의 생애 전부를 주님에게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다. 또한 성도는 그의 생애 전부를 다스리며 그 나라가 임하기 까지 노력하기를 추구하는 왕이다.

그렇다면 개혁 신앙에 의해서 채워져야 할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가? 그 필요는 인간의 삶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뜻을 이루는 것이다 (Heerema, 1978, 4ff).

쉴더(K. Schilder)는 자유주의의 아버지인 쉐라이에르마허와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것을 지적하였다. 쉐라이에르마허와 함께 노발리스(Novalis)도 범신론주의자요 낭만주의자이다. 쉐더는 종교를 자기 수양을 위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역할 수행(role-fulfillment)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따라서 칼빈주의는 기독교에 대한 서구의 전반적인 증거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거짓 증거나 견해들로 양쪽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쉐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교, 혹은 보다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다. 또한 심령을 위한 하나의 분리된 기능도 아니다. 인생의 여정의 가운데서 가장 왕성한 시기 동안에 행하는 하나의 헌신적인 종교적 집단들의 고립된 행위도 아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종교란 단순히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봉사이다.'고 하였다(Schilder, 1977, p.41).

이제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이 본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깊은 인상을 주는 데 왜 실패하였는가? 필자는 남미에서는 85%가, 아프리카에서는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데 비하여, 아시아에서는 오직 2%만 교인이라는 최근의 통계를 접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아시아인들은 기독교 진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최초의 대륙이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 지식인들의 오랜 전통과 더불어 그들이야말로 개혁 신앙의 힘을 가장 잘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왈버트 불만(Walbert Buflmann)은 최근의 그의 선풍적인 책, 「제삼 교회의 도래(The Coming of the Third Church)」에서 세계의 모든 대중교의 요람이요, 삼대 단일신 종교의 발상지요, 가장 강렬한 종교적인 분위기와 예술과 문화의 찬란한 전통을 가진 아시아, 아시아가 적어도 기독교 사상을 나타

나는 대륙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몇몇 정직한 아시아인들은 '인도, 미국, 태국, 영국, 버어마, 프랑스 중 어느 나라가 더 복음의 정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 서구 제국들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적인 부정, 부패, 가공할 만한 세계 대전들, 조직적인 범죄 단체,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동양의 국가들은 (물론 몇몇을 제외하고) 온유한 정신, 평화를 애호하는 마음, 형제애,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 일, 가난을 잠잠히 수용하는 생활 자세들을 지니고 있음을 본다. 복음의 정신은 분명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쪽에 있다(Buhlmann, 1977, p.162).

우리가 기대하는 토인비나 톨리히 등도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간은 지적인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참담한 실패를 초래하였다. 어쨌든지 비인간적이지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각 인간의 성취에 대한 이 같은 놀라운 불균형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지상에서 인간의 삶 중 가장 큰 불행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측면은 비인간성 위에 있는 인간의 지배력보다도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최후의 수단에 있어서 심지어 물질적인 복지를 위하여) 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Toynbee, 1948, p.262).

폴 톨리히는 아시아에서 복음의 진전이 매우 느린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모든 선교 지역에서 미개된 사람들과의 교통은 개발된 지역과 교육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곳보다 언제나 용이하다. 그 이유는 미개한 사람들의 성품이 때가 덜 묻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아주 발달된 종교를 지닌 곳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그들이 기독교적인 대답을 진정한 답변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성이,

복음이 답변해 주는 문제들을 질문해 오지 않는 삶의 자세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Tillich, 1959, p. 204).

솔직히 필자가 티리히를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지식인들, 특히 불교나 유교적인 전통에 깊이 젖어 있는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본다. 필자는 로마서 1장에서 종교에 대한 바울의 분석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꼬집어 내는 적용점은 자연의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도 사상과 발전」이라는 그의 책에서 인도의 제사장적 계급에 있는 브라멘들이 윤리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영혼, 세상, 영혼의 비밀을 꿰뚫는 데에만 관심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요술적인 능력과 요술적인 원시적 힘에 대한 지식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초인간(superman)으로 간주하며, 오직 인류에게서 추앙 받는 니체의 가련한 초인간적보다 훨씬 위대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온 우주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슈바이처, 날짜는 미확인)

바빙크(J.H.Bavinck)는 「문화를 꽃피우는 선교사(The Missionary of Culture)」라는 글에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글에서 바빙크는 그의 대표적인 책,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접근법(The Approach in the Broader Sens)」의 내용을 보다 더 확대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Bavinck, 1961, pp.100ff). 그의 주요점을 여기 요약해 실는다.

1. 약한 문화에 대한 강한 문화의 영향은 변치 않는 강한 문화를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약한 문화는 그 위에 강한 문화의 흔적을 갖게 된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지의 문화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균형이 채 형성되기 전에 이미 수 세기가 흘러버릴 수도 있다.

2. 서구의 영향은 기술적인 것과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구는 사람들의 종교적 생활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 서구가 '그 자신의 문화적 힘과 흐름을 보다 깊이 폭로하지 않는 동안'에 그 결

과는 종교적인 공백 현상이다(헤르만 도이베르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추구하였다). 바빙크 박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가지고서 정확히 말리노스키(Malinowski)를 신뢰하고 있다. 즉, 종교란 생산에 의한 문화,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부수 현상(Epiphenomenon)이 아니라 심층 깊은 도덕적, 사회적인 힘이다. 이것은 인간 문화와 궁극적인 병합을 가져온다'(Ibid., p.123)는 것이다. 문화를 꽃피우는 서구와 선교사는 부수 현상의 커다란 위험과 위기 속에서 그들이 접근하는 문화에 빨려들었다. 반발(Van Ball)은 지적하기를 '비서구 문화적 요소들은 그것들이 원시적인 것이든 고상하게 개발된 것이든지, 자연과 내적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비추었고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주어진 신성한 규칙들을 굳게 붙들고 있다.'고 하였다(Ibid., p.104)\* (그러나 토인비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연 종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볼 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3. 현대 문화 변용(modern acculturation)에 있어서 놀랄 만한 변화의 속도와 결합되는 것은 문화 변용의 과정에 의하여, 그리고 그 과정을 강렬하게 함으로 창조된 정치적 긴장의 폭발적인 양상이다.

4. 문화적 의식은 본질적이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불확실하고 혼돈되어 있으며 명확치 못한 서구 그 자체는 문화가 내적인 약함과 무의미함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주도적인 문화 역할을 감당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선교사들의 노력은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구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동기들에 대하여 충분히 비판적이지 못하였다. 그것은 서구의 과학과 풍성한 삶을 위한 서구적인 역량을 수용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

\*헨드릭 크래머(Hendrick Kraemer)는 말하기를 인도나 중국, 또한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종교적 문화 조직에 있어서 그 본질과 관련하여 "문화와 종교의 공생... 우주적인 자연주의의 낡은 조직... 의 거대하고도 당당한 생성물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서구 문화는 현상적인 논쟁들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의 종지부에 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고딕체 부분은 필자의 것임) (Kraemer, 1960, pp. 20, 21).



한 서구의 눈에 띄는 축복들 뒤에는 감추어진 저주도 끼어 있음을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다(*Ibid.*, p.106).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현대적 생활 및 사상 사이의 도저히 융화되지 못하는 이원론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다(*Ibid.*, p.107).

## 문화적 행위의 의무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들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거나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더욱 부적격한 자들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문제가 꼬여 있고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것일 때 문화적 변화를 위한 압박을 가함에 있어서 정말 망설여지며 조심스럽게 추구하는 바이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아니 대개 소수의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도 전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과 특히 국민들을 타락케 하고 멸망케 하는 문화적 양상이 농후한 곳에서 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크리스찬 문화를 건설하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가? 미국의 개혁 교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인 헨리 질스트라(Henry Zylstra)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가장 독보적인 개혁주의 공동체인 우리들에게서조차도, 그 공동체 안에서 추구되는 삶에 있어서 오직 부분적으로만 기독교적이며 여전히 개혁주의적이지 못한 복합 사회인 것이다(Zylstra, 1958, p.4).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에게 기독교 문화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종교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문화와의 분리이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할 때, 종교가 문화와 분리됨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국가와 교회를 분리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기독교 원리와 함께 전체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헌신하였다. 우리는 지금 그 결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을 보고 있다... 우리가 때때로 부르는 문화 명령을 계승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룩하기를 원하는 실재 왕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Ibid.*, pp. 50, 51, 고딕체 부분은 필자의 것임).

문화를 직면하는 선교는 복음을 드러내는 최선의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복음의 토착화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선교 사역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느냐이다. 나의 관심은 고립되고 적대적인 주위 환경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친구약 성경의 정신을 재 포착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러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의 의식(儀式)과 문화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원리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확실히 구약성경은 종교적인 의식과 윤리적인 문화적 삶을 위한 지침들로 가득 차 있다.

2.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들이며 따라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리이다. 그러나 그 일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예배 의식과 문화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되어야 한다.

3.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에 따라 열방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독을 받게 된다.

먼저 1번 사항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게할더스 보스는 출애굽기 19:5, 6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우리말 성경에는 '내 소유가 되겠고' 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울 사도는 위의 5절 말씀을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을 촉구하는 문맥 속에서 디도에게 인용하고 있다. 특히 그가 언급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슬픈 실례들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딤후 2:12~15).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은 3:8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와 같은 개념을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측면을 살펴보자(벧전 2:9~15, 참고, 신 7:6).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성도들을 그룹이나 한 국가, 백성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보라. 이것은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통치하는 독자적인 나라를 구성하라는 명령이 아닌 것이다. 13절과 14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통치자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순종하도록 요청 받는다. 그러나 위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 생활 양식, 윤리적 실천 등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이고도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치된 생활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해 보자.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11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12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15절).

종종 합성어가 되어 사용되는 말은 영어의 well과 good이다. 그러나 '선행'과 '잘 한다' (또는 '힘쓴다'에 해당되는 well doing)라는 용어는 문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 다 세상 안에 있다. 필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문화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생각하기 바란다. 우리는 여가 선용으로 즐기는 어떤 예술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섬세한 기술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출발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과일이나 문화의 꽃을 가지고 출발할지 모른다. 그러나 뿌리를 가지고 출발하지는 못한다. 문화의 뿌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토양 속에 심겨져야만 한다(필자는 여기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그것이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카이퍼나 쉴더의 논쟁 속에 빨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문화의 뿌리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 보존하며,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것도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인 임무이다. 여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또는 목적 없는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계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은 참된 문화적 행위인 것이다.

문화적인 틀에 있어서 인간의 최초의 혁신적인 행위는 최악스러운 것이라

는 점은 논쟁점이 될 만한 것이다. 그 행위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몸을 가리우는 문화적 행동은 그 자체가 죄악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에는 보다 더 힘들고, 보다 더 손질이 가며, 더 많은 부분을 가리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여전히 가죽옷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일이 참 잘 되었다는 것에 분주하게 생각한다.

필자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 자손의 특징적인 죄목들은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들에 대한 문화의 연관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1. 땅을 개간하는 자로서의 가인은(이 일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땅의 산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히 11:4). 그리고 부정적인 분노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대적하고(5,6절) 살해한다(7,8절).

2. 비록 가인은 피난민이며, 방랑자요,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저주를 받았지만(네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 4:12) 그는 낫 땅에 거함으로써 방랑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었고, 결혼도 하며 성을 쌓고 살았다(16,17절). 작크 엘룰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성(도시)은 종종 악을 상징하며, 타락과 압박 및 군중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그려낸 새 예루살렘은 문화적 도시 생활의 안전함 속에서 완성된 미와 장엄함, 위로가 넘치는 곳이다.

3. 라멕(4:18~23)에 대한 언급은 6 절이나 할애되었는데 어찌면 이것은 문화적 및 사회적 생활에 대한 라멕의 위반 행위의 극대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첫째, 그는 두 부인을 취하였고,

둘째, 그의 상처를 인하여(전에 받은 것인지, 혹은 싸움 중에서 그랬는지도 모름) 사람을 죽였고,

셋째, 그것을 부인들에게 자랑하였으며,

넷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며 이성에 대한 변질적인 사용을 함에 있어서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적인 복수하심을 촉구하고 있는 점이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로다.'

사실 어떤 저자가 제시한 것과 같이 라멕은 그의 아들 두발가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무기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그의 수련생들이 그 일을 행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유발이 만든 악기를 취했거나 또는 그의 문학생들이 산문적으로 그의 자랑하는 것을 노래하였을 것이다(이 노래는 시를 읊는 것처럼 보인다).

악행들이 문화적인 구조 안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아벨의 선행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주를 만든 노아의 행위 역시 문화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목자요 조선평으로서의 하나님, 교사요 기술자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요 문화 활동의 영웅이시며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원조상인 것이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크리스찬의 문화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베드로전서 2:8~15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는 이 두 곳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들의 선택과 거룩함이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애착을 갖게 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예언자적인 역할은 제사장이요 왕적인 역할로부터 흘러나옴을 생각해 한다. 다시 한번 인용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관련됨을 알수 있다.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게 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슬(Nestle)의 헬라이어 텍스트에 의하면 출 19:6은 계 1:6과 5:10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되었고, 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구절들을 살펴보자. 계 1:5은 선지자, 제사장 및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

하고 있다. 그러나 1:6은 성도의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을 본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증인으로서 교회의 예언자직이 종종 강조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아주 놀라운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과 베드로가 출 19:5,6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왕직과 선지자직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불신 세계를 향한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요한이 제사장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개념을 확장하며 더 넓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미래를 바라보게 하거나, 또 세상을 향한 제사장직이나 왕직이 재림 이후에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는 왕중의 왕이요 지상의 왕이시다. 왕 또는 왕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ἄρχων은 주님이 완전한 왕이 이제 될 것이란 사실을 내포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왕직을 취임하게 될 날을 기다리는 왕의 아들이라는 그런 차원의 왕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크리스찬의 예언자적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멀리 내다보아서도 안 된다. 1:9에서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밭모’라 하는 섬에 있다고 하였다. 5:10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사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제사장) 죽임을 당하시고 보좌 가운데서 계신(왕) 어린양이라는 사실을 본다. 7:10,15을 함께 비교하여 보라. 같은 왕이요 제사장인 어린양이 최후 심판 전에 인간에게 다양한 심판들이 있음을 예고하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여신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경고하고 있다(선지자적 행위). 요한은 한 책을 먹으라고 주어졌고, 또한 그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10:10,11)고 들었다. 계 20:6에서도 천년을 통치하게 될 자들이 제사장들이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선지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한다(왕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직과 제사장직이 선지자직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선지자적인 역할은 제사장직과 왕직을 제외한 이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직분들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직책들이다.

제사장 나라란 왕 대신에 제사장이 통치한다거나 왕들이 제사장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펴본 여러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받아 세움을 입은 자들이요, 그 직책들을 열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나라와 관계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백성에게만 전파하였다. 그러나 백성 자신들은 이방인들에게 한 빛이어야만 했다. 에드문드 클라우니(Edmund Clowney) 교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케 할 의무”라는 제목하에 선교 과정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다음 본문들을 열거하였다(사정상 여기 다 설명할 수는 없다)신 28:10, 9:28, 32:27, 출 34:10. 나는 여기에 수 7:9을 첨가한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교회에서 선지자직만을 내세우며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부분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 원인이 대체로 선교 명령의 체계에 있어서 제사장직과 왕직이 없이도 마치 말씀에 대한 선지자적 증거가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머리를 잘라 버리고 좁은 안목으로 선교 명령에 대한 해석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 속에 그러한 경향을 전수받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제자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행동 안에서 구체화된 전반적인 제자도를 생각함이 없이 내적인 신앙적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다.

## 선교와 선교사, 그리고 지방 문화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를 위한 분명한 지침을 원하겠지만 주의와 신중한 태도가 요하는 곳에서는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주저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최근에 영어로 번역된 쉴더(Klaas Schilder)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추천한다. 또 니젤 리(Nigel Lee)가 쓴 아주 흥미있는 작은 책자 「문화의 성장 과정」(개혁주의신행협회 발행)을 추천한다. 이 책들은 이 방면에서 예리하고도 능숙하게 성경적인 지침들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고무시키는 한 실례로서 필자가 쓴 「한국 시골에서의 기독교 문화」(*Christian Culture in Rural Korea*, 1974년에 한국어판도 출판되었음)를 추천한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궁극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쉴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문화와 관련하여 완벽하신 그리스도 : 문화 달성이 인간의 의무 가운데 있고, 또 어느 누구도 문화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살 수 없는 까닭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문화적 책임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문화적 삶 위에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언행을 책임지시며, 그의 모든 언행 심사가 자신이 둘째 아담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서 행하여졌다.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망가뜨린 문화적 상황(세상)에서 문화 명령을 성취하시는 분이셨다. 전적으로, 순수하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원래의 법칙에 따라서 문화적 상황이나 복잡성에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문화적인 행위는 무엇이겠는가?(*op. cit.*, p. 34, 35).

말씀이시며 증보자요, 보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실재이시며, 든든한 반석이요, 원천이며, 완성자요, 구속자이며, 문화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Ibid.*, p. 35).

2.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쉴더에게 있어서, 바울과 그 당시의 성도들은 전체 로마 제국보다 문화 생활을 위하여 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불안전하고 쇠약하며,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격렬한 거짓 문화로 뒤덮여 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작은 몇 개의 마을에 거하는 순진한 몇몇 직공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서 그들의 매일의 노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족 조각을 무두질하거나 장막을 만들거나 분명한 일거리들을 손수 일하였다. 이것은 로마의 가이사가 궁전에서, 그의 춤추는 자들, 월계관들, 문에 보호자들 및 대도시들과 더불어 이루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로마에 한 죄수가 호송되었을 때 문화에 취해버린 로마의 모든 것보다 문화 생활을 위하여 바울의 존재는 매

우 특별하였다. 그는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였다.

그는 동료 죄수들에게 큰 빛을 보여 주었으며, 철학의 중심지 로마에 집을 정하였다(*Ibid.*, p. 49, 50).

바울은 세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난관에 부딪힌 것에 대하여 설교하였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였다.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은 그의 설교와 행동에 있어서 중심 테마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같은 문화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것보다도 공동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적절하게 진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신학적으로 인도된 문화 구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력히 공동체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코이노니아)과 관련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또한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Ibid.*, p. 64).

어린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새 도성은(계 21:10, 11) 정원이 아닌 한 도성으로 묘사되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완전한 처소가 된 사실이, 도성의 거리들, 건물들, 성곽과 성문의 모습에 나타나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올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21:6) 위한 곳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선교사들인 우리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 기독교적 문화의 영향에 관한 실례들

라토렛(Kenneth Scott Latourette)은 선교사들과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문화적으로 중국의 변화를 향한 그들의 공헌을 아홉 가지로 진술하였다 (Latourette, 1973, pp. 831~843).

1. 신앙 공동체의 고상한 도덕적 표준이 끼친 영향
2. 혁명군 지도자들이 강압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새로운 학습 교육
3. 학교들과 많은 부족들을 위한 부족어의 출판 형태를 통한 기여
4. 교훈과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복지를 위하여 학문이나 가르침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 인지를 보여 주는 것보다도 더 빠른 서구 학문의 형태를 도입하는 것
5. 중국인들이 윤리적 표준에 대한 재주입과 중국인들의 사회적 양심의 자각-이것은 아편 거래, 전족(纏足), 유아 매매 문제 등에도 적용된다.
6. 개인을 위한 높은 관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7. 준비와 문학에 대한 분석, 특별히 성경과 윤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가져오는 사람들, 하나님과 종교적인 삶
8. 비기독교적인 신앙을 와해시키는 영향, 또는 경쟁을 통하여 불교나 유교와 같은 보다 높은 종교와 더불어 효과적인 개혁
9. 선교사에 의한, 서양에 대한 동양적 해석

이 모든 것은 사회적 복음을 위해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복음이 개개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지속적인 선포를 돕는 문화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생성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제네바 학교에서 멋진 열매들을 기억한다. 존 리이쓰(John Leit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네바 학교(The Academy at Geneva)는 여러 측면에서, 그곳에서 사역한 칼빈의 사역에 대한 최고의 업적이었다. 그 학교의 뿌리는 기독교 강요와 교회 법령들 안에 들어 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의 교양 과목들을 맞본 학생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비밀들을 보다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Leith, 1977, p. 78).

월터 역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켜 준다.

교회로부터 순종의 불(순수한 문화적 불꽃을 포함하여)은 전세계 위에 지펴야만 한다(고딕 글자 부분은 필자의 것임).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새 사람들을 낳고, 적어도 문화적인 삶과 관련하여 온 세상의 짐을 지는 새 사람을 낳는다(*op. cit.*, p.79).

교회는 가장 작은 역할을 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하는 간접적인 문화적 힘이 되어야만 한다(*Ibid.*, p.81).

### 정통 장로교의 한국 선교와 한국 문화

한국 선교는 재능과 물질의 적은 재원 안에서 경제적, 문화적 공헌을 남기려고 늘 애써 왔다. 한국 선교는 사과를 개량시키고, 분업을 소개해 주며, 건축과 의료 및 교육 등의 문화와 기술을 새로 도입한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세워져 있다. 한국 선교의 베테랑급인 하부선(Bruce F. Hunt) 선교사는 교역자들의 경제적 자급 자족을 조장하기 위하여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염소와 토끼들을 사육하면서 수년 간 사역을 하였다. 그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한국 문화의 어떤 영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식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했다. 그는 한국 종이의 생산, 한국적인 손기구들의 사용에 아주 열성적인 학생이었다. 필자의 동료인 랄프 잉글리쉬는 한국의 야생 동물, 특히 조류의 생태에 관하여 전문가가 되었으며, 그의 지식을 사용하여, 자연으로부터 설교할 재료를 위한 좋은 필름들을 포함하여 시청각 자료들을 만드는 데 그의 사진 기술이 유용하게 함께 사용되었다.

랄프와 필자는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태양 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었다. 필자는 요리하는 일과 물을 데우는 데 전문가가 되었다. 랄프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집을 성공적으로 짓게 되었다. 우리들은 후자 부문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선교 사역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다른 성도들도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였다. 우리는 이 일이 돈을 저축하는 것이 되었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자원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였다. 혁신적이며, 상상력을 키우고, 자원의 풍부함을 가져다 주는 사역이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창

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다른 일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요리나, 껌질을 까는 칼, 식초와 꿀의 사용, 절연을 위한 왕겨의 사용 및 다른 많은 작은 것들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은 어디서든지 작은 출발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작은 출발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필자는 그러한 분야에서 한국 교인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측면에서 한국 크리스찬 형제에게 반복하여 강조한 주요한 점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1. 교회를 예배 중심지요, 양육의 터요, 친교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증거와 예배 및 건물 밖에까지 끼치는 간접적인 섬김과 매일의 삶을 위한 모임과 가정, 국가, 경제적인 영역 등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사건에까지 미치는 섬김의 중추적인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교회의 일을 아주 좁은 차원에서가 아닌 넓은 문화적 행위로 생각하라. 문화 행위는 넓은 차원에서 믿는 성도들 개개인이 이룩해야 할 사명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과 왕으로서 증거(전도, 선교)와 봉사의 현장에서 해야 할 신앙 공동체의 임무이다.

3. 자기 구원, 자기 만족, 자기 완성의 목적을 뛰어넘어 가라. 그리고 양심적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섬기기를 구하라.

4. 현존하는 교육적 구조들을 의존함이 없이 상상력, 상식, 기회 활용 및 자신이 의식하는 방법으로 은사들의 활용을 보존하고 개발하도록 추구하라.

5. 예배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교회의 강조점을 덜 강조하며,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전도와 일반적인 일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을 지워 버리라. 그리고 영적 및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이 둘이 병합되게 하고 또

일치된 신앙 생활과 봉사의 부분들이 본질적인 사역이 되도록 하라. 이것들 자체가 영적인 삶, 문화적인 삶을 광활하게 증진시킬 것이다.

6. 재점검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검소함, 단순함, 청지기의 삶, 청교도적 직업 윤리 등 종교 개혁의 강조점과 최고의 원리들을 사용하라. 그럴 때 카이퍼나 쉴더 같은 이가 언급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과 문화적 명령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게 된다.

7. 이러한 생각들을 단순히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집과 일터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쉽게 한 계단씩 나아가라.

### 참고 도서

Bavink, J. H.,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adelphia, Pa. 1961.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Translated from the Dutch of 1954.

Buhlmann, Walbert *The Coming of the Third Church*, Maryknoll N. Y. 1977.

Dawson, Christopher, *The Judgment of the Nations*, N. Y., Sheed and Ward. 1942 (John H. Leith가 쓴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77, p. 68에서 인용하였음).

*Religion and Rise of Western Culture*, N. Y., Doubleday, 1958.

Hard, Theodore, *Christian Culture in Rural Korea, Pusan*, 이것은 복사판이지만 한국어로 출간된 「종교와 사회」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음 (1977. 4월에 출판된 책임)

Heerema, Edward, *The Banner*, Feb. 17, 1978, pp. 4, 5.

Kraemer, Hendrick, *World Cultures and World Religions, the Coming Dialogu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Latourette, K. S.,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in China*,

Taipei, Ch'eng Wen Publishing Co. Ltd., 1973.

Leith John 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77.

Schilder, K., *Christ and Culture*, Winnipeg, Premier, 1977.

Schweitzer, Albert, *Indian Thought and its Development*, Boston, Beacon Press. Date not available(Beacon 문고판은 37쪽이 빠져 있음)

Toynbee, Arnold J., *Civilisation on Trial*,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Tillich, Pawl, *Theology of Cul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